

박물관

야쿠시마 섬에는 자연과 문화·역사에 관한 박물관이 많이 있어서 방문객이 섬의 유산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야쿠시마 환경문화촌센터

미야노우라 항구 가까이에 위치하며, 오르막 경로를 따라 아열대 해안에서 한랭한 산지까지의 추이를 표현한 전시물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전시물은 물, 바다, 마을, 숲, 산악 신앙에 관한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형 영상홀에서는 섬의 자연환경을 다이내믹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집 영화 야쿠시마 섬 숲과 물의 교향곡은 일본어로 하루에 수 차례 상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영어 간판과 영어 가이드(음성 가이드 펜)가 있습니다. 관내에는 투어리스트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원칙적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 개관합니다. 영상홀·전시홀 입장료는 어른 530 엔입니다.

야쿠시마 환경문화연수센터

이 연수센터는 안보 항구 가까이에 있는,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서 야쿠시마 섬의 자연환경과 산업, 생활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 그 외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야쿠시마 세계유산센터와 야쿠스기 자연관 근처에 있습니다. 입구 홀 라운지에 관광 안내가 있습니다.

야쿠시마 세계유산센터

안보에 있는 이 시설은 1993 년에 야쿠시마 섬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데 따라 1996 년에 일본 환경성의 직원을 배치한 환경성 시설로서 오픈했습니다. 세계유산 전시를 비롯하여 야쿠시마 국립공원과 섬의 자연환경, 환경 보전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정보 패널이 있습니다. 등산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거의 매일 개관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야쿠시마초 역사민속자료관

미야노우라에 있는 이 박물관은 조몬 시대(기원전 10,000~300 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야쿠시마 섬 사람들이 생활에 사용했던 목공구와 공예품, 가면, 도기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우오마네키와 쓰나히키 축제 등의 전통 예능과 축제에 쓰는 물건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바깥에는 야쿠스기 삼나무 지붕 널을 만들었던 고민가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이 지붕 널은 연공을 바치거나 쌀이나 밀, 보리 등의 생활필수품과 교환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전시는 일본어로만 소개하고 있지만, 희망할 경우 영어 안내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월요일, 토요일 오후,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합니다. 입장료는 어른 100 엔, 초중고생은 50 엔입니다.

야쿠스기 자연관

안보에 있는 이 박물관은 수령 1,000 년이 넘는 섬의 삼나무인 야쿠스기 삼나무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트의 간격이 좁은 그루터기의 단면은 야쿠스기 삼나무의 성장이 느낌을 말해줍니다. 또한 옛날의 수공구부터 현대의 전기톱에 이르는 별채 도구, 야쿠스기 삼나무 지붕 널의 복제품, 윌슨카부 그루터기의 컴퓨터그래픽 이미지, 2005 년에 부러진, 유명한 조몬스기 삼나무의 실물 가지(길이 5m, 무게 1.2t) 등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야쿠스기 삼나무의 통나무를 산에서 마을로 운반했던 디젤 기관차가 박물관 밖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전시가 있습니다. 6 개 국어를 지원하는 음성 가이드(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와 영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헤드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